



[산업] 5G, 3월 일반에 상용서비스 갈길 바쁜 이통사 05



Life

[라이프] 뉴트로·비대면·HMR 3대 트렌드에 발 맞춘 프랜차이즈 L4



# 서울 야경 한눈에... 성곽길 따라 달빛 산책 어때요



낙산공원의 야경 모습.

## 되살아나는 서울

### 종로구 '낙산공원'

18세기 말 제작된 한양 지도 '도성도'에는 백악산(북악산), 인왕산, 목격산(남산), 타락산(낙산)의 내사산을 중심으로 한 한양의 빼어난 자연이 담겼다.

서울을 구성하는 내사산 중 하나인 낙산은 서울 도성의 동쪽 산봉우리로 풍수지리로 볼 때 좌청룡에 해당한다.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좌청룡, 낙산에는 능선을 따라 도성이 설치됐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상당부분 파괴·손실됐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와 주택에 잠식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역사 유물로서 기능을 잃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낙산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주변의 녹지축과 연결해 낙산의 모습과 역사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14년만에 완성된 낙산공원

낙산은 산의 모양이 낙타를 닮았다고 해서 낙타산으로도 불린다. 예전에는 산 중턱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서울시의 녹지 확충 계획에 의해 낙산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낙산공원조성사업은 1997년부터 14년에 걸쳐 이뤄졌다. 시는 걷기 편한 서울성곽길을 만들기 위해 종로지역과 성북지역을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 공원과 서울성곽길을 연결했다.

1단계는 종로지역에서 진행됐다. 시는 1997~2002년 14만8088㎡ 면적



지난 17일 낙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성곽길을 걷고 있다.

### 14년동안 공원조성사업 진행 건물 철거하고 편의시설 설치 낙산 꼭대기 성곽길 야경 명소

에 7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동승시민아파트 30동, 건물 176동을 철거했고 낙산 복원, 비우당과 전시관 건립,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2단계 성북지역은 2006~2009년 4만9336㎡ 면적에 2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낙산 동쪽 사면의 노후화된 건물 164동을 없앴다. 소나무 등 키 큰 나무 12종 1307그루와 사철나무와 같은 키 작은 나무 16종 5만240그루를 심어 녹지를 복원했다. 1km에 달하는 성곽탐방로와 휴게시설, 성곽조명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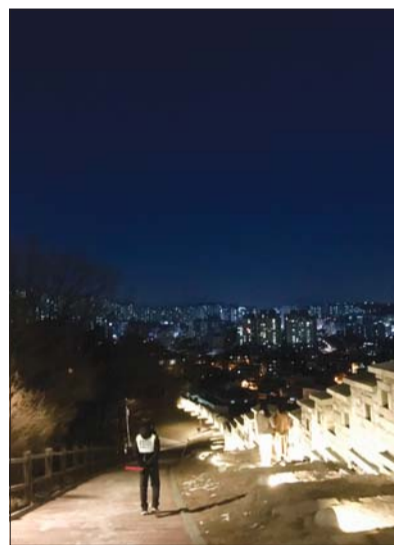
시는 2010년 동대문~낙산공원~동소문로(혜화문)을 잇는 2.16km 서울성곽길을 모두 연결, 1997년부터 14

년 동안 진행해온 낙산공원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좌청룡 낙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종로구 동승동에 위치한 낙산공원을 찾았다. 해화역 2번출구를 나와 마로니에 공원을 가로질러 약 5분을 걸었다. 거대한 중앙광장과 함께 낙산전시관이 나타났다. 전시관 동쪽,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는 계단이 설치됐다. 북쪽에는 제1~3전망광장이 들어섰다.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보이는 전망광장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날 낙산공원을 찾은 박광현(27) 씨는 "친구와 함께 운동할 겸 해서 런지(하체 근력 강화 운동) 동작을 하며 올라왔다"며 "놀이광장 옆에 운동기구도 설치돼 있어 가볍게 몸 풀기 좋다"며 활짝 웃었다.

동승동에서 사는 이주영(25) 씨는 "본가가 서울인데 낙산공원이 너무 좋아 근처에서 자취한다"며 "월세로 나가는 40만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



관리요원이 낙산공원을 순찰하고 있다.

### ◆떠오르는 야경 명소

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낙산 꼭대기에 있는 성곽길이었다. 성곽에 오른 사람들은 성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바빴다.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방모(34) 씨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중재 씨가 낙산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보고 좋은 곳인거 같아 한번 와 봤다"면서 "TV에서 봤던 것 보다 훨씬 아름답고, 저 멀리 남산타워까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다.

가족과 함께 낙산공원을 찾은 김태형(37) 씨는 "회사 동료와 낙산공원 야경이 정말 예뻐다며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며 "여기서 해 지는 것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다"며 미소지었다.

김 씨는 "올라오면서 봤는데 성벽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구멍에 머리를 넣는 사람도 있다"며 "애들이 따라하려고 해서 말리느라 진땀 뻘었다. 공원을 지키는 관리요원이 좀 더 많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한양도성을 가꾸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시민순성관을 선정·운영해왔다. 시민순성관은 조선시대 도성을 순찰하는 순성관에서 따온 이름이다. 도성 보존과 정화활동을 하는 지킴이 순성관은 월 1회 탐방로 주변시설을 점검하고 도성 보존 캠페인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시민순성관은 한양도성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유지하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